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얼터모던의 시간성이 반영된 미술관 공간 설계와 관계 미술 행위 - 경남 진주시 구도심 남강변 현대미술관 -

Altermodern Temporality in Museum Design and Relational Aesthetics - Contemporary Art Museum on the Nam River in Jinju, Gyeongnam -

○최 민 경* 김 동 규**
Choi, Min-Gyeong Kim, Dong-Kyu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art has shifted beyond physical and semantic boundaries, forming meaning not as a self-contained object bu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udiences and the passage of tim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esign of a contemporary art museum in the old downtown of Jinju, Gyeongnam, based on the concept of Altermodern. The research methodology combines site analysis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Altermodern,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design proposal in terms of spatial configuration and the inducement of actions. By addressing the urban and natural challenges of the site, the study presents a museum in which the temporality of Altermodern and relational aesthetics are spatially and performatively embodied.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as a contemporary cultural facility that fosters an active relationship with the city by guiding relational art practices grounded in the temporality of Altermodern.

키워드 : 얼터모던, 이시성, 관계 미술, 동시대 미술관, 진주시

Keywords : Altermodern, Heterogeneity, Relational Aesthe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를 반영한 미술관이 문화 생성 장소로써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주시도 공공건축물을 지으며 문화 생성 장소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지방 중소도시 중 도시재생 정책을 적극 실행 중인 진주시의 남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에서 운영 중인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2025년 말까지 가좌동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문화와 역사적 특징을 공간과 형태에 반영하며 구도심에 활기를 주는 현대 미술관의 설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프랑스의 큐레이터이자 미술 평론가인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1996년 ‘얼터모던(Altermodern)’ 담론을 통해 현대 전시가 단일한 해석을 넘어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경험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리오의 담론에서 제시된 개념 일부를 현대 미술관의 설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먼저 얼터모던 이론을 고찰한

후, 진주시의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고찰하여 이시성을 미술관의 개념에 접목한 공간화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관계 미술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도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용할 수 있는 중소도시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미술관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대상지 분석

남강은 진주시를 대표하는 하천이며 구도심 중심에 있는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 남강변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강에서는 매년 10월에는 유등축제가 개최되어 역사적 장소성을 넘어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상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과거 남강의 범람지였으나, 1970년대 개간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으로 편입되었다. 남강이 흘렀던 흔적에 관한 자연스러운 흐름은 문헌 속에만 남아 있지만, 대상지는 강을 마주하는 입지와 구도심이라는 맥락 속에서 역사·문화·자연의 흔적이 중첩된 장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 얼터모던의 시간성

니콜라 부리오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 새롭게 나타난 동시대의 미술 행태를 정의하기 위한 단어로 ‘얼터모던’을 제시했다. 얼터모던의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 순의 일직선상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모더니즘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학사과정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사(대한민국/독일)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gkim@gnu.ac.kr)

의 선형적 시간이나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차용, 혼합, 반복될 수 있으므로 끝없이 반복되며 돌아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 순환 시간도 아니다. ‘다중적 시간성’을 띄는 것을 얼터모던이라고 하며, 하나의 보편적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층위들이 서로 교차하고 뒤섞이며 중첩되는 시간성을 의미한다.

2.3. 이시성과 관계 미술

얼터모던의 시간성에서 드러나는 이시성은 단일한 시간 체계가 아닌 서로 다른 시간대와 리듬이 중첩되고 교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부리오가 동시대 미술을 설명하며 제시한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동시대의 작품들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치더라도 공통적으로 재창작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예술은 시간의 다양한 층위 속에 존재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동시대 미술은 창작자가 제시한 그 자체로써 완결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와 반응으로 함께 만들어지며, 관객은 ‘공동 창작자’로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동시대의 예술 전시는 서로 차용되며 다양한 시간성이 공존하는 이시성의 개념을 포함해 그 시간의 층위 속에서 관객의 참여 반응, 그리고 시간이 함께 쌓여 채워나가는 ‘관계 미술’의 전시로 정의할 수 있다.

니콜라 부리오는 1996년 Traffic 전시를 통해 ‘관계 미술(Relational Aesthetics)’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관객이 전시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과정 자체를 흔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전시는 장소적·시간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다수의 관객이 참여하며 완성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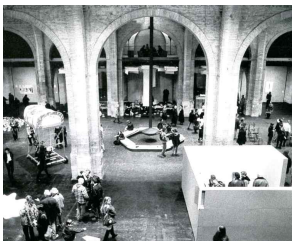


그림1. Traffic, 니콜라 부리오



그림2. do it,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

3. 설계 개념

3.1. 이시성 측면으로 고찰한 대지의 특성

본 연구는 과거 개간 사업으로 사라진 강의 흔적과 현재 대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을 매개로, 얼터모던의 이시성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 대지에 흘렀던 강의 흐름을 선으로 추출하고, 그 흐름의 과정에 집중하여 이를 면적 요소로 확장하여 공간화 요소로 설정하였다. 과거 자연의 흔적에서 추출한 면은 관람 동선으로 계획하고, 해당 동선은 물리적 차원에서 수직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이시성을 공간적으로 표

현하고자 하였다. 수직적 다양성으로 형성된 공간의 중첩은 현재와 미래에 과거의 자연 흔적을 담아낼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각 공간에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을 지닌 대지 주변의 도시 스카이라인과 미술관 형태가 중첩되어 보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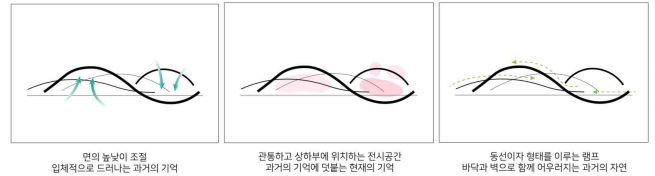


그림3. 개념 다이어그램

미술관 공간은 과거 자연의 흔적을 토대로 구축되며, 그 위에 수직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공간들은 시각적으로 중첩된 자연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미술관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연적 기억과 흔적을 포괄하며, 얼터모던의 이시성 개념을 내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3.2. 관계 미술 전시 미술관

입면에 드러나는 수직 보이드는 다양하게 자연을 유입시키며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과 경험을 제공한다. 보이드에서 이루어지는 시선 교환과 자연 유입은 미술관이 공간 자체로써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해주는데, 이러한 특성과 연계하기 위해 경사형 동선을 적극 반영하였다. 기획형 전시는 자연, 사람, 시간 세 요소가 함께 했을 때 전시 공간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하며 관계 미술이 실현되는 복합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4. 전시 공간의 자연 유입

4. 건축 계획

4.1. 컨셉 공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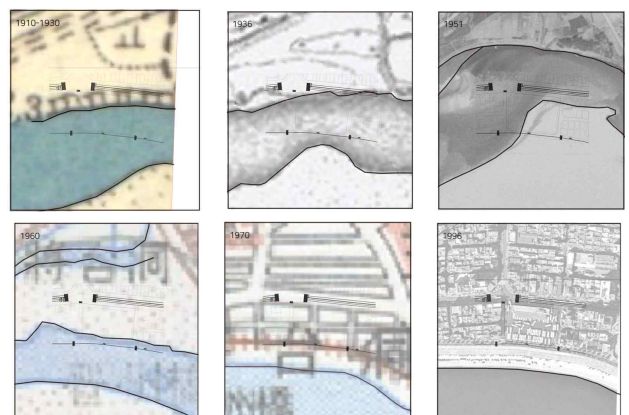


그림5. 선 추출 과정

우선 과거 진주의 지형도와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약 10년을 주기로 부지를 지나가는 유의미한 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선을 중첩시켜 시간적 층위를 제거하였다. 또한 이 선들을 토대로 면적 요소로 공간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 요소들이 부지를 지나간 자연의 흔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인접한 선들 간의 공간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하 및 좌우 위치를 조정하고, 그 중 주요한 다섯 개 선을 중심으로 면으로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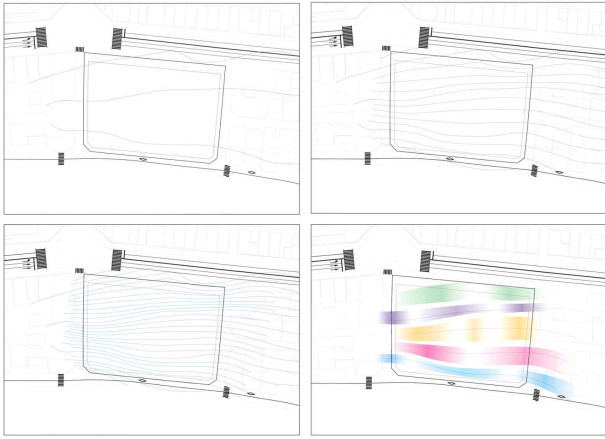


그림6. 면 확장 과정

4.2.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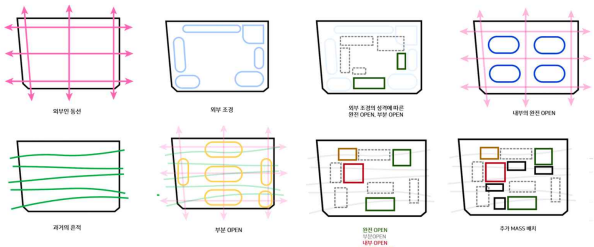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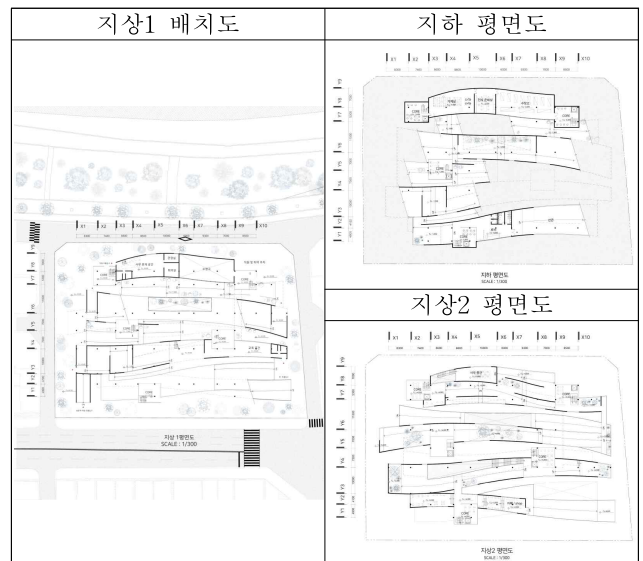
그림7. 평면 배치 다이어그램

평면 배치에서는 대지 경계의 모든 네 면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북쪽에 왕복 5차선 도로, 남쪽에 왕복 2차선 도로,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골목과 연결되는 보차혼용 도로가 있어 보행자가 여러 지점에서 진입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도보로 접근했을 때의 주 출입구 위치를 고려해 대지의 각 모서리에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외부 공간을 배치했다. 또한 북측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5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이를 시각적으로 차폐하기 위한 외부 조경을 배치하였다. 평면상의 보이드는 이러한 외부 조경과 외부인 동선, 동선형 슬라브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접근하고 머무르는 공간에 조경을 계획하였고, 이 공간에 면하여 하늘로 완전히 개방된 수직 보이드를 배치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수직적인 소통을 유도하였다. 보행자가 이동하는 중심 공간과 인접한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열린 보이드를 배치하였다. 전시 공간에도 물리적, 시각적 영향을 주는 보이드를 고려하여 유리로 구성된 코어 매스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4.3. 평면 계획

남측 남강변에서의 진입을 고려하여 1층 남측에는 가변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야외 공간이 있고, 동측과 서측에서는 골목에서의 사람들이 중앙의 열린 보이드를 지닌 야외 램프 공간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며 대지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구도심과 연결되는 북서측의 횡단보도에 면하여 야외 광장에서 이어지는 경사로를 통해 지하 선크로 출입이 이루어진다. 지하 중앙 전시 공간에는 1층의 야외 램프와 시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자연 유입을 유도하는 열린 보이드가 위치하고 있다. 남측은 지상 야외 램프에서 시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열린 수장고가 있다. 2층에서는 지상의 로비 램프에서 이어지는 카페와 뮤지엄샵이 있고, 남측의 1층 사무 휴게 공간과 연결된 사무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남측은 낮은 벽으로 구획된 전시 공간과 남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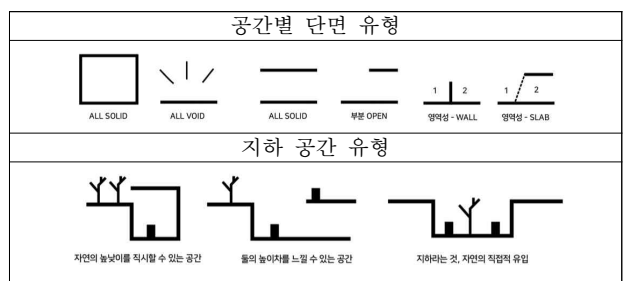
표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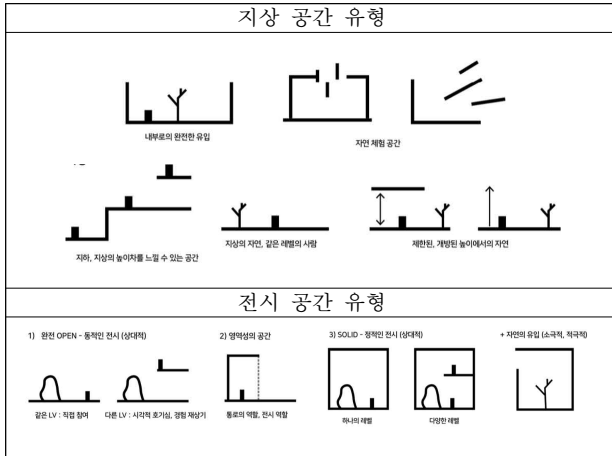


4.3. 입·단면 계획

단면계획에서는 solid, void, 부분 open 등으로 공간별 단면 유형을 구분하고, 지하와 지상에서 조경과 채광이 인접할 때 사용자의 공간적 체험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도록 표 2와 같이 수직 공간을 분류하였다.

표2. 수직 배치 공간 유형 다이어그램





대지와 도시 및 남강과의 연결을 높이에 따라 단면 다이어그램으로 입·단면 계획을 진행하였다. 평면의 프로그램 배치와 연계하여 수직 보이드의 공간 관계를 고민하였고, 각 층의 프로그램 공간(완전 solid), 상부 슬라브를 통해 공간 영역이 느껴지는 공간(부분 open),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완전 open)으로 앞서 고찰한 단면 공간 유형을 프로그램에 맞추어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시선 교류 지점, 조경 규모 및 배치 지점을 고려해 평면과 입면에 필요한 개구부를 추가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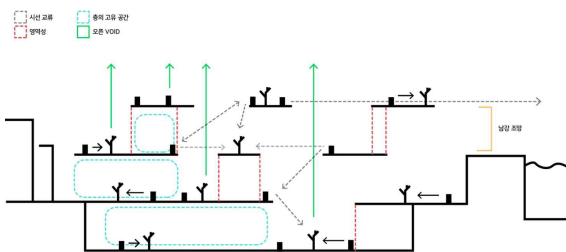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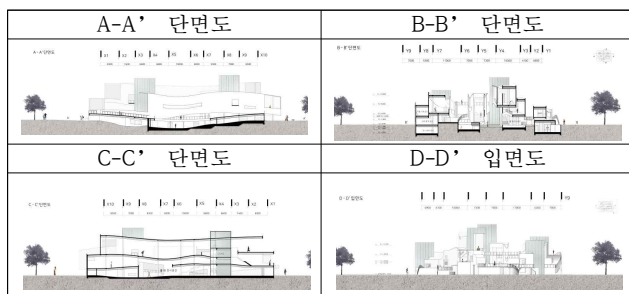


그림8. 수직 배치 유형 적용 다이어그램

단면도와 입면도, 투시도에서는 앞서 언급된 공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홀형 전시 공간에서는 다른 매스, 혹은 여러 레벨과 연결되는 계단과 보이드를 두어 시선 교류와 이동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해당 매스의 상부 전시 공간을 포함한 각 매스는 다른 전시 공간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의 개구부를 계획했다. 또한 매스 서쪽 공간의 입면과 지붕에 적극적으로 열린 보이드를 두어 조경 요소와 함께 테라스 공간을 구성하였고, 남측의 중첩된 매스를 거쳐 남강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입·단면도, 투시도



공간의 스케일과 외부 자연 유입을 고려한 다채로운 레벨, 층고, 보이드는 공간적 측면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동선형 전시 공간을 관통해 지나가는 코어 매스와 남북 방향의 브리지는 다양한 레벨을 잇는 전시 체험의 편의성과 매스 간 유연한 연결을 돕도록 계획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공간과 시선으로 중첩하여 이시성을 드러내는 미술관으로 계획하였다. 관람자는 미술관을 이동하며 내외부가 교차하는 장면을 경험하고, 미술관은 대지 주변과 전시가 상호 작용하는 매개체로서 공간적·시간적 층위를 동시에 체험하는 장소로 도출된다.

5. 결론

대상지는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지방 소도시, 진주시에 위치하나, 구도심에는 아직 자연 요소의 적극적인 유입이 부족하다. 이는 구도심의 거주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미술관은 알터모더니즘의 이시성 개념을 공간에 적용하여 부지에 자연의 시간적 층위가 뒤섞이도록 계획했다.

수직적으로 프로그램이 접목된 미술관 공간은 도시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지며, 각 레벨에 보이드와 함께 형성된 테라스와 전시 공간을 매개로 남강과 자연 요소의 시각적·체험적 중첩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미술관은 사람들 간의 관계 미술 행위를 유도하도록 공간 계획을 고찰하였고 각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대 문화 시설로써 지역성을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성은. 미술관, 근대성과 타자성을 되묻다 - 테이트브리튼의 미술관학 -. 미술과 교육, 17(2), 2016
2. 김종기. 21세기 서양미술의 동향과 전망을 위한 시론 3 - 니콜라 부리오의 알터모더니즘(Altermodernism)에 대한 비판적 독해: 알터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대안인가?. 현대미술학 논문집, 21(1), 2017
3. 조주현. 포스트-미디어(Post-Media)시대 예술에서 나타난 ‘참여’의 의미. 현대미술학 논문집, 19(1), 2015
4. 김은영. 미술관 경험을 통한 내면의 변화 가능성 - 블루메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박물관 교육, 4, 2015